

### 현역이나 신인이나...민주당내 경선 치열할 듯

#### 광주 동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후보 군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 내 경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이에 맞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 유동국 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욱 전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최영호 전 남구구청장 등이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



윤영덕



노형욱



문상욱



문정은



유동국



정진욱



최영호

윤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교육·운영·정부·예결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거치며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진월동 송전탑 이전,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송촌파크골프장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알리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노 전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낙향해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그는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미래 산업 준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경제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서점 창업·경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이재명 당 대표의 대변인만 4번을 역임하는 이색 경력도 갖고 있다.

최영호 전 남구구청장은 남구의회 의원, 광주시의원, 구청장 등을 거치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구청장 시절 8년간 민원 현장 방문만 3000여회에 달할 정도로 주민과의 소통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유동국 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는 광주와 전남, 두 지역의 테크노파크 원장을 모두 지내고, 재임 기간 산업부와 중기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거두는 등 경제산업 정책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제6·7대 전남도의원과 한국공공기관 감사협의회장, 한전 KDN 상임감사 등을 지낸 문상욱 동남갑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정의당은 최연소 시당위원장인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호남정치 1번지'...전직 구청장들 거센 도전

#### 광주 동남구을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는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혔던 광주 동구와 남구 일부 행정동이 합쳐진 곳이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민주당 내에선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노희용 전 동구청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이정락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운영위원 등이 뛰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년 만에 광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현재 시당위원장을 맡아 당원 중심의 정계특위 설치, 시장 사무처 실명제 도입 등 공약을 꾸준히 실현하면서 지역 조직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양형일 전 국회의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엘살바도르 대사를 역임한 그는 최근 SNS를 통해 광주 정치 복원 등을 내세우며 사실상 정치 재개를 알렸다.

노 전 청장은 재임 기간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 최초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동구 숙원사업이었던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환경공단 이사장에 오를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출마가 점쳐진다. 문



이병훈



김미화



김성환



노희용



문충식



안도걸



양형일



이정락

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경제 관료 출신인 안도걸 전 차관도 동구에 안도걸 광주경제연구소를 차리고 민주당 경선 도전에 나선다. 이밖에 '호남 정치'를 바꾸겠다며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이정락 운영위원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에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충식 (주)씨에스디 대표이사사 정외당에서 홍성남 동남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진보당은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이 일찌감치 당내 후보로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최고위원 아성에 정치신인 도전장

####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 앞선 21대 총선에서 경선을 벌였던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정치신인'으로 나서는 조인철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 준비를 갖추고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혔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그를 지명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당내 기반도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는 9월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과 올해 말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확정짓고,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내면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까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광주형일자리 지원법 국회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김대중 정부)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앞선 2018년 서구갑 재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두 차례 낙마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민생 현장에서 꾸준히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이상 양동시장과 상무금융시장을 방문하면서 바닥 민심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지역 방송국의 정치평론가로 방송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조인철 전 부시장은 일찌감치 출마 준비를 마쳤다. 영광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



송갑석



강승철



김명진



박형민



윤종록



조인철

범비 관리과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파견관을 거쳤다. 이후 2019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해 2년 여동안 재임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GM) 성공적 경영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선대 명예교수인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정의당에서는 박형민 서구갑 지역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강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현 국회의원 4명 경쟁에 '다크호스' 등장

#### 광주 서구을

광주 서구를 선거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 간 총성없는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 등이 재선 도전에, 6선 의원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7선 도전에 나선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무소속 신분인 양 의원은 당적과 상관 없이 지역구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현안을 정부·국회에 전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출신인 김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판 삼아 고향인 광주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일찌감치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양 전 고검장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영입된 뒤 '국민검정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방어 등에 나서면서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천 이사는 광주와 호남을 '정치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대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출마할 예정이다. 강



양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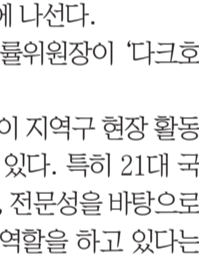
김경만



강은미



김해정



양부남



천정배



하헌식

의원은 서구에서 서구의원, 광주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주민과 소통해 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 유일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이다. 현장 민원사무실을 차려 풍암호수 수질개선 문제 해결책 제시, 노인복지관 개보수, 풍암중학교 강당 리모델링 등 지역 민원도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에선 하헌식 사단법인 남도미래발전연구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진보당에서는 김해정 풍암호수원형보전매립 반대 수질개선 대책위원장이 출마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SG 경영  
농산물 수출 진흥  
신민생 농업 육성  
농식품 수급안정  
안심 먹거리

농수산식품산업 강국 실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합니다

af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